

# 불교영화 3편 가을 제작

**성철** 성철스님 생애·구도기행 답아  
**동승** '엄마찾아 삼만리' 동자승 그려  
**인연** 천년을 넘나드는 애정 코미컬

남편과 누수의 계절 가을을 맞은 영화계에 불교적인 주제와 소재를 바탕으로 한 불교영화 제작 바람이 불고 있다. 영상미와 예술성을 강조한 박철수 감독의 '성철'(감독 박철수)과 스펙트럼필름 코리아의 '동승'(감독 주경중), 신선한 웃음을 선사할 율가필름의 '인연'(감독 이창립) 등의 영화가 크랭크 인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간다.

지난해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화 '성철'은 성철스님의 구도기를 그린 영화로 갖은 산고 끝에 이달말 제작발표회를 갖는다. 박철수 감독을 비롯한 제작진들은 해인사에서 3천배를 올린 후 영화 촬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성철스님의 생가, 수영차 비련암 등을 주요배경으로 촬영할 이 영화의 연출을 맡은 박철수 감독은 단순한 성철스님 일대기

에 급급하지 않고 스님의 생애와 구도행을 통한 진정 불발 발현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철스님의 청년시절을 연기한 연기자로 는 현재 KBS-2TV 주말연속극 '파랑새는 있다'에 출연중인 병달이역의 이상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펙트럼필름 코리아의 '동승'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찾아 먼길을 떠나는 동자승 '도둑'의 이야기를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율가필름 작가 함세덕의 희곡 '동승'을 원작으로 하는 '동승'은 주인공 도넛 역에 백성현, 미망인 역에 이응경, 주지스님역에 권성덕, 젊은 스님 정심 역에 홍경인, 산사 촌부역에 최종일 등 캐스팅이 확정됐다. 동승은 21일 제작발표회를 갖고 순천 선암사 승주 승사 안동 봉정사 등을



◇서정적 불교영화 '동승'의 출연진들. 왼쪽부터 이응경, 백성현, 소경진, 홍경인

주 촬영지로 제작에 들어가 내년 봄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중훈과 김지호가 출연하는 로 맨틱 5인 코미디 '인연'은 전생부터 인연의 실태로 얽혀 있는 두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코미디치로 그린다. 노채원 김양희와 남지친구 박지훈 두 주인공의 천년을 넘나드는 사랑을 유머로 풀어내며 인연에

얽혀 있는 우리 삶을 묘사한다.

'성철' '동승' 등 불교영화들은 국내 개봉은 물론 해외진출까지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교영화의 한차원 높은 영상과 세련미를 기대해 볼만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김지연 기자



### 세계적 화귀종 '가시연꽃'

세계적 화귀종 가시연꽃이 6일 공주 석문저수지에서 보라색 꽃을 피웠다. 7~8월에 개화하는 가시연꽃은 환경부가 보호식물로 지정된 꽃이다. 가시연꽃의 잎은 초콜릿색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광택해져 잎의 직경이 2m가 넘는다.

한편 제43회 전국 과학전람회에서는 경남 과학고 공영식·백공 석교사는 '멸종위기 가시연꽃의 보호와 이용방안'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다. (사진·선암스님)

### 불교TV 가을개편 하루 18시간 5분 방송

'아침예불' '우리절...' 등 신설

불교TV가 22일부터 '아침예불', '영상 니르바나' 등의 프로그램을 신설, 대대적인 가을개편에 돌입한다. 이번 개편에서 신설된 프로그램은 매일 새벽 6시에 방송될 '아침예불'과 매일 아침 5분간 명상의 시간이 될 '영상 니르바나' 등이다. 도심지 포교당을 중심으로 불사이아가, 복지 인도교육 등 다채로운 이야기로 꾸며질 '우리절 우리스님' (PD 이인성)도 매주 토요일 새로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월·화요일 방송될 특선 다큐멘터리 '티베트 대담사'에서는 티베트인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여기는 해발 6천여미터의 강립포체 산상을 비롯해 최초의 사원인 람예사, 최대의 탑 백여탑 등을 만날 수 있다.



어린이 만화영화 시간에는 '우주손오공'에 이어 지혜롭고 총명한 동자승 풍풍이 스승 지후이로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을 담은 만화 '아기스님 풍풍' (사진)이 방송된다.

이번 가을개편에서는 평일 16시간35분이었던 방송시간을 18시간5분으로 확대, 주간 총 방송시간이 126시간55분으로 늘어났다.

### 자비의 법륜 ①



**뚜** 벅벅 검은 그림자가 언제부터인지 나를 뒤쫓기 시작했다. 그 검은 그림자에 놀라 나는 가슴은 사정없이 땀방울이 맺히고, 점점 무거워지는 다리는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어 놓을 수 없을 만큼 긴장돼 있었다. 살려달라고 애달릴 사람도 없이 골목은 고요하기만 했다. 나는 내 발자국 소리에 놀랐고, 내 뒤를 쫓는 그림자의 발자국 소리에 기분 나빴다. 그런데 입을 코 앞에 두고 골목길을 접어들어 순간 아~악.

"누구예요?"

가느다란 손짓을 불빛에 놀라 나는 비몽사몽 간에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누군가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급히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꿈 속의 검은 그림자에 놀라 깨면서 집에 몰래 숨어 든 밤손님(?)을 놀라게 한 모양이었다.

남편도 없는 집에 도둑이냐 겁이 덜컥 났다. "도둑이야, 도둑이야." 온 동물이 다나가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아심한 탓인지 어느 누구도 나와 보지 않았고, 나도 뱀다며 재가 없는 것 같아 경황에 신고도 하지 않았다.

그날은 남편이 지방으로 출장을 간 지방은 나와 아이들만 있었다. 아이들은 한바탕 소동이 났는데도 아무 것도 모른채 잠에 빠져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안전해 다행이었다.

한숨 돌리고 앉아 있자니 나를 놀라게 했던 도둑생각이 깊었다. 잠결에 국소생인 아들인가 착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도둑이 나가고 난 뒤에도 대문소리가 나지 않았던 것 같아 불을 켜고 뒷걸음으로 가 보았다.

뒷집에는 스무살 안팎의 남매를 데리고 사는 할머니가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그 소란스러운 속에서도 마치 딴 세상에 살기라도 하는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두런 두런거리는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하는 수없이 나는 방에 다시 들어와 없어진 게 없나 살폈다. 사실 집에는 환절기 감기에 걸

려 병석에 계시는 친정어머니에게 한약이라도 지어드리려고 은행에서 찾아놓은 돈이 있었다. 핸드백을 뒤져 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눈앞이 아찔했다. 아, 이렇게 도둑맞는다는 것이구나 싶었다.

내가 온집안을 돌아다니며 부산을 떠는데 갑자기 배가 싸르르 아파오기 시작했다. 화장실에 앉아 밖으로 나가서 못하고 집안에 있을 도둑을 생각하니 무서움이 엄습했다.

문을 생각하니 부상을 열어, 대문 밖 공터에서 숨이 턱민 지감을 찾았다. 주민등록증은 화장실 변기통 속에 있는 것을 큰아이가 발견했다. 도둑은 집안에 있다. 그렇지 못한 현상. 감지 못했으니... 나는 뒷집에 가 어제 집에 도둑이 들었더니 어젯 밤 아무일 없었던 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슬쩍 "도둑이 이쪽으로

### 꿈속 검은그림자에 놀라 잠을 깨보니 집안에 '밤손님'이 들어와 있었다



그림·이준석

가는 것 같았는데... 라며 말꼬리를 흘렸다.

키가 후리후리하게 큰 흉측한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나그네 파우도 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 그들이 도둑이려면 속을 풍금알아가며 그 사람들과 얼굴 맞대고 한지붕 밑에서 살아가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또 우리 아이들에게 해꼬지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되었다.

도둑은 부엌에 난 환풍기를 들고 들어와 바닥에 운동화 자국까지 선명하게 남겨 놓았다. 단정지를 쓴 없지만 도둑을 버리는 눈앞에 두 고도 모른 채 참고 싶지만 죽을 맛이었다.

도둑을 맞던 그날은 남편과 아침부터 싸운터라 하루종일 짜증스럽게 보냈다. 평소 집안일에는 신경도 안쓰던 남편이 그렇게 절절 자주 가면 애는 누가 보느냐며 신경질을 부렸던 것이다. 사실 난 매일 초하룻날만 잠을 가다가 얼마 전부터는 거의 매일 기다시피 했다. 심지어 막내까지 과자 한봉지 돌려 옆집에 맡겨놓고 가기도 했다.

김선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계수동)

## 삶은 꿈이 아니다 ....

삶의 혁명적 전환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책 **대행스님/법어집**

### 대행 스님의 끝없는 구도 열정, 그리고 중생 사랑이 빚어낸 깨달음의 노래

고(古)에서 벗어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창조적인 삶, 부처님 뜻 가운데서의 편안한 삶, 대자유인의 길, 여기에 있습니다.

역시아론 주소 : (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 (02) 737-0695 (영업부), 737-0691(편집부) FAX : (02) 737-0696

# “ 한국 불교 결집 21 ”

## 대행 스님 부산 대법회

21세기 디지털 팔만대장경 불사를 위한

일시 **1997. 9. 28. (일요일)**  
 장소 **부산 사직실내체육관**

삶은 (고)가 아니다

모든 과거의 결과들을 마음 안으로 놓아 나간다면 그것들은 모두 공(空)이 됩니다. 그것이 관자, 업보, 운명을 넘어서는 방법인 것이며, 거기에서 자유인으로서의 창조적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현실의 고통이란 알고 보면 순간순간 자기를 밖으로 인도하는 과정이요, 밀려들입니다.

-대행 스님 법어 중에서-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와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이 공동 주관하여 '21세기 팔만대장경 불사를 위한 대행 스님 부산 대법회'를 마련하였습니다. 21세기 문화 선진국으로서의 초석을 이룰 21세기 팔만대장경 불사가 완만히 회향되기를 기원하는 이번 법회에서 대행 스님의 "삶은 고가 아니다"는 주제 법어를 통해, 700여 년 전 고려 때, 팔만대장경을 조성하여 민족적 위난을 이겨 냈듯이, 오늘의 경제 위기 타개와 사회 혼란 극복을 위한 민족적 슬기를 모읍시다.

주관: (사)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불교부산방송 한마음선원 부산지원(051-403-7077)

후원: KBS 부산방송총국, 부산 MBC, 부산방송 101 부산불교 텔레비전, 중앙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부산매일,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부산 불교선도회, 부산광역시의회 경각회, 석림 동문회, 현대불교신문의 불교계 각 언론사



